

# “불티가 대형 화재로”...쓰레기 소각 부주의 비상

### 광주·전남 최근 3년 1138건...사망 4명·부상 26명 건조·강풍 등 최대 위험...소방, 5월까지 집중 대응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소방력 낭비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역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총 1138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광주 68건, 전남 1070건으로 전남 지역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등 모두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광주 1명, 전남 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08건, 2024년 374건, 2025년 356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재산피해 역시 2023년 27억7670만원, 2024년 4억7839만원, 2025년 3억7681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문제는 화재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 부주의’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오후 2시51분 나주시 영산강 정원 인근 둔지에서 들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9명과 장비 9대

를 투입해 오후 3시48분 불을 껐다. 화재로 둔치 갈대밭 약 1.5ha가 타거나 그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쓰레기 소각 중 강한 바람에 불이 번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8일 오후 1시56분 장성군 서삼면의 한 임야에서도 불이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1대, 소방대원 16명, 산불진화대 1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9분 만인 오후 2시25분 불길을 잡았다. 이로 인해 임야 0.2ha와 묘지 2동 등이 타 6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해당 화재는 한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

다 발생한 불티가 주변 임야로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16일 오후 1시34분에는 진도군 지산면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19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으며, 묘지 등 임야 일부가 소실됐다. 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생긴 불티가 임야로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순 부주의가 반복되면서 소방력 투입과 행정력 소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봄철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대

기, 잦은 강풍이 겹치면서 화재 확산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힌다. 광주·전남 소방당국은 3~5월을 봄철 화재 취약 시기로 보고 주거시설과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불법 소각 단속 등에 방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봄비 내리는 거리 광주·전남 지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서 첫 ‘김호중 방지법’ 위반 적발

### 음주운전 의심...술타기 의혹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에 적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 북부경찰은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37분 서구 상무지구에서 북구 우산동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20대·여)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가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의심한 시민 신고에 의해 적

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같은날 오전 7시42분 광주 북구 우산동 한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을 사서 마셨다는 시민 신고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술은 차에서 내려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호중 방지법’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67명 탄 여객선 좌초’ 선장·선원에 형사처벌

### 운항 중 휴대전화 응시...1등 항해사·조타수도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하게 만든 선장과 선원 등 3명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항해

사 B씨(39)에게는 금고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오후 8시16분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 전원은 좌

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4년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당시 휴대전화 시청 등으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

점을 놓쳤고, C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믿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무인도로 전진하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장으로서 여객선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선장실과 침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다만 사고 이후 피고인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 공원에서 행인에 새총 발사한 50대 검거

광주 도심 한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새총을 쏘다 처해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18일 상해 혐의로 A씨(5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인 20대 후반 남성의 이마에 쇠구슬(0.5mm)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마 등에 경상을 입은 것

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원룸에 거주하며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도주했으나, 경찰 추적 끝에 이날 낮 12시32분 주거지 인근 한 마용실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 전남남도경찰청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교통공단 | GTCL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